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78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 정현숙 권사 유임... '다비다 같은 여성' 주제로 200여 명 참여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정현숙 권사)가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 여전도회100주년기념수양관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다비다 같은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지회에서 모인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부처리와 함께 결속을 다졌다. 또 입기가 2려인 임원은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수석 부회장, 부회장, 부회계 자리에 김애경 권사

(등대교회), 이해경 권사(참빛누리교회), 이경자 권사(고천교회)가 새로 선출됐다. 이날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조일구 목사가 사도행전 9:36~43의 말씀을 가지고 '여제자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조 총회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 여전도부장 오성택 목사의

환영사와 부총회장 김민수 목사, 주찬양 교회 홍사진 목사,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의 격려사,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의 축사 및 교단보고가 있었고, 장로회전국연합회장 김종현 장모와 남전도회전국연합회장 노재익 장모가 축사를 전했다.

이러진 총회에서는 사업부 및 지련회 보고, 예산안 심의 등의 회부 처리가 이어졌다.

심리부, 목사안수대상자 및 타고단 목사·원로목사 청원 등 심리 목사안수대상자 33명 전원 고시부로 이첩



총회 심리부(부장 이근수 목사)가 지난 4월 총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목사안수 청원자 심리 및 타고단 목사 청빙, 원로목사 추대 허락의 건 등을 다뤘다.

타고단 목사 허락의 건은 우리교단과 동등화제를 갖고 있거나 상호 교류하는 교단인지를 점검하는 등 면밀히 검토 후 이를 승인코로 하였다.

11명의 원로목사 추대 허락의 건도 상정되어 심리를 마쳤다. 목사안수대상자

청원에 대한 대면 심리도 이어졌다. 경기지방회를 비롯한 33명에 대해 일일이 대면 질의를 통해 목회자로서의 가치관과 교단성 등을 꼼꼼히 살펴 대상자 전원을 고시부로 이첩하였다.

이날 심리를 마친 목사안수 후보자들은 총 33명으로 국내 31명 해외 2명이며 여성 목사안수 후보자는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해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단독목회자도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정



- 3. 31 부활절연합예배
- 4.1~13 튀르키예에 사역
- 14 광주지방회 전도대회
- 16 중경부총회장회 정기총회 임원후보자 정간발표회
- 18 김응조 목사 추모예배
- 19 원로·영예목사회 총회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총회성결교신학교, 신학기 맞아 세미나 개최

'성막의 세계' 주제로 김경열 목사 진행



총회성결교신학교가 신학기와 함께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일 총회본부 대에배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성막의 세계(언약과 성막)'를 주제로 진행됐다.

총신대 및 전주대 초빙교수 김경열 목사가 진행한 이번 특별세미나는 하나님은 성막에 무엇을 심어 두셨기에 작고 조라한 예배당이 그토록 위대한 것일까?를 시작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

오는 성막의 제작과정과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소개하고 그 의미들을 설명했다. 그는 "성막신학은 한 마디로 성육신 신학"이라면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예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말했다.

총회성결교신학교 학장 김순홍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막의 오묘한 구조들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현직목회자와 신학생을 돕는 세미나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사안수 후보자 면접 실시

고시부, 자질·소명감 등 확인... 33명 전원 합격



목사안수 후보자 면접이 지난 4월 4일 총회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고시부(부장 이종복 목사)는 심리부에서 이첩된 목사안수 후보자 33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후보자들을 면접했다. 면접은 목사의 자질과 행정, 사명감, 목회관, 교단관에 대하여 각 조별로 진행됐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고시부원들은 목사

안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목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성과 영성 등 자질을 점검하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일일이 확인했다.

목사고시 등을 합격하고 목사안수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후보자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차분히 응답하고 향후 목회계획과 진로 등을 밝혔다.

면접에 앞서 고시부원들은 후보자들에게 '교회의 일꾼 된 삶'에 대해 설명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마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께 맡을 바치고 마음을 비워야 하며, 신자들과 이웃들에게도 일평생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 합격된 후보자들의 목사안수식은 103회 총회 이후 각 지방회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들 세우는 일에 섬기는 자 되길"

개교회 청년 사역자 초청 워크숍

개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위한 청년사역자 워크숍이 지난 21일 서대문구 소재 나 의교회에서 있었다. 40여 명의 청년사역자들이 초청되어 '공동체 성경읽기, 소그룹 세팅하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 강의를 진행한 지앤앤의 정준택 과장은 "성경 전체를 1독하는 데 한국이로는 85시간이 걸린다. 이 외에 영어로

95시간, 중국어 100시간, 일본어 110시간, 인도네시아어 143시간 등이 소요된다. 매년 새해마다 성경 읽기 계획만 세운다.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이 한국 80-90%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들이 성경 전체를 실감나게 낭독한 드라마바이블 콘텐츠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나의교회 광병훈 목사가 소그룹 세팅하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과 청년사역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교회에서의 청년사역의 어려움과 교단에 바라는 사항들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드린 예배는 청년부장 이창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청년사역위원회 부위원장 이 천 장로의 기도 후 교단 총무 이강춘 목사가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겼던 것처럼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입결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결교회 선교 118연차대회 및 제103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현장 제93조에 의거하여 제103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대의원 및 대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바라며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성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벘전 1:16)
- 일 시 : 2024년 5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대강당
- 문 의 : 총회 사무국(070-7132-0010, 0011)

● 총회 기도제목

1. 교단의 비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2. 거룩한 총회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